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봄맞이 인테리어 나선 고객 위해 '봄리빙페어' 진행

2022. 3. 11.

- **133개 국내외 유명 리빙용품 브랜드 참여해 고객 선택의 폭 넓혀**
- **특가상품, 카테고리, 브랜드에 따라 쉽게 검색하고 쇼핑 가능해**

2022. 3. 11. 서울 - 쿠팡이 봄 날씨를 맞아 집안 분위기를 바꾸거나 이사에 나선 고객을 위해 인기 리빙용품을 한 데 모은 '봄리빙페어'를 13일까지 진행한다.

쿠팡 '봄리빙페어'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많이 찾는 침구류부터 봄에 맞게 집안을 꾸밀 수 있는 조명 등 인테리어 소품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특히 133개 국내외 유명 리빙용품 브랜드가 참여하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쇼핑의 폭이 넓다.

이번 페어에 참여한 브랜드는 바디럽, 부케가르니, 코코도르, 에이센트, 두진, 허브타임, 쿤달, 르미에, 더허브샵, 바자르, 제로캔들, 쉬즈홈 등으로 다양하다. 페어 기간 내에 와우 멤버십 회원이라면 이들 브랜드의 대표상품을 한정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

대표상품으로는 라뽐므 노르빅 차렵이불, 조은리빙 이동접이식 빨래건조대, 기라로쉬 코마사 코지 홈 타월, 쿤달 퍼퓸 내추럴 소이 캔, 더릭스홈 9존 마약매트리스, 웰퍼니쳐 아쿠아텍스 4인 소파 등이 있다.

여기에 '카테고리'와 '브랜드관'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편리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할인 중인 상품 역시 종류에 따라 쉽게 검색할 수 있어 쇼핑 편의를 더했다.

'봄리빙페어'의 카테고리는 침구, 홈데코, 가구, 카페트/쿠션/거실화, 수납/정리, 틈새서랍/정리함, 행거, 욕실수납/정리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이외에도 색상과 재질, 스타일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매년 봄에는 이사철 답게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등 리빙용품을 찾는 고객이 늘어난다"라며 "이번 봄 리빙페어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알뜰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